

Focus 1

2008년 세계경제 전망

□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07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IMF는 2008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07년의 5.2% 보다 0.4%p 낮은 4.8%로 전망

-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고용시장 위축, 가계소득 감소 등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2008년 경제성장률이 2.0% 내외로 머물 전망. 다만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경기 하락폭이 다소 완화될 예정
- 일본은 소비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따른 엔화강세, 설비투자 증가율 미진 등의 원인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 대비 0.3%p 낮은 1.7%를 기록할 전망
- 중국은 정부의 성장조절 정책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수출 및 고정투자 증가세, 베이징 올림픽 특수, 임금상승 등으로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유로경제는 미 서브프라임 사태 관련 신용경색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유로화 강세와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 대비 0.4%p 낮은 2.1%를 기록할 전망
- 2008년도 인도경제는 수출 감소 및 정부의 금리인상 정책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지만, 정부의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해외자본 유입노력으로 8% 중반의 성장은 달성 가능

- 러시아경제는 고유가에 따른 석유산업부문의 호조와 건설 및 제조부문의 성장으로 2008년 6%중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 전망〉

(%)

	2006	2007	2008
전세계	5.4	5.2	4.8
선진국	2.9	2.5	2.2
미국	2.9	1.9	1.9
유로지역	2.8	2.5	2.1
일본	2.2	2.0	1.7
독일	2.9	2.4	2.0
프랑스	2.0	1.9	2.0
영국	2.8	3.1	2.3
개도국	8.1	8.1	7.4
중국	11.1	11.5	10.0
인도	9.7	8.9	8.4
ASEAN4	5.4	5.6	5.6
러시아	6.7	7.0	6.5
브라질	3.7	4.4	4.0
멕시코	4.8	2.9	3.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7.10)

□ 2008년 세계교역은 2007년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

— 고유가 기초,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세계 소비심리 위축과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2007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

- IMF의 2007년 세계교역 신장률 추정치는 전년보다 2.6%p 낮은 6.6%이며,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6.7%로 전망

□ 유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2007년 국제유가는 Dubai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68.07달러로 전년대비 10.8% 상승할 것으로 추정

- 2008년에도 신흥국가들의 원유수요가 지속되고, 미 원유재고 부족, 노후설비의 가동률 저하 등 공급불안이 확대되어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

〈해외전문기관의 국제유가 전망(Dubai기준)〉

(\$/배럴)

	2007(a)	2008(b)	차이(b-a)	시나리오
CERA	68.07	70.56	2.49	기준유가
	69.93	99.50	29.57	고유가
	65.68	63.50	-2.18	저유가
EIA	71.36	79.92	8.56	기준유가

주 : 전망시점은 2007년 11월 6일임

□ 미 달러화, 2008년에도 약세 지속

- 미 경기둔화와 Global Imbalance 문제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전망
- 유로/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하락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신용경색 우려가 잔존하고 있어 그 폭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위안/달러 환율은 주요 선진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과 중국내 해외자금 유입지속으로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동조하며 완만한 강세기조를 보일 전망

〈국제환율 전망〉

	2007	2008
- Global Insight(기간평균 환율)		
달러/유로	1.36	1.43
엔/달러	117.41	105.84
위엔/달러	7.60	7.04
- IB평균(기간말 환율)		
달러/유로	1.44	1.45
엔/달러	112.2	108.7
위엔/달러	7.39	6.92

주 : IB의 경우 2008년은 2008년 9월말 전망

□ 미국 주택경기 침체의 악순환

- 미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면 주택 급매물 출회로 재고가 급증하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 이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유질처분을 확대시키고 주택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유발하여, 결국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

- 2007년 약 20%의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각국의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 이는 각국의 금리인상을 유발시켜, 세계경제 둔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 중국정부는 현재 과열투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과감한 성장조절 정책을 단행 중. 자칫 과도한 조절정책은 일시적이거나 중국 경기 급락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Focus 2

일본 전기전자 업계의 수익률 양극화 현상

□ 2006년도 일본 전기전자 업계의 성공·실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액정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업계를 리드하는 샤프,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제품 이외에 생활가전제품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이는 미쓰비시전기, 프라즈마 텔레비전과 디지털카메라 등 폭넓게 제품의 강점을 지닌 마쓰시타 전기산업 등 3개사가 5%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 달성

- 샤프는 액정 분야의 투자 확대와 함께 수익성을 향상시켰고, IT버블 붕괴와 함께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마쓰시타전기도 V자 회복세 시현

— 2001년도와 비교한 매출액 신장률 측면을 보면 샤프, 마쓰시타, 도시바와 전략 분야로의 집중투자에 성공한 기업이 사업규모 확대에도 성공

— 실패 또는 부진한 기업

- 영업적자를 기록한 일본빅터는 마쓰시타 전기 그룹을 떠나 캔우드와의 경영통합으로 방향 전환

- 샤프와 자본제휴를 맺은 파이오니아, 교세라와의 휴대전화사업 매각을 진행하는 산요전기 등 중견 메이커는 잇달은 저수익으로 고전

-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이 늦은 히타치제작소와 소니 고전

* 히타치는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하드디스크 사업 분야, 소니는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3」의 판매부진으로 게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셀」 생산설비에 대해 각각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음

- 한편 게임기 회사인 닌텐도, 반도체의 인텔, 휴대폰의 노키아, 컴퓨터의 애플 등 특정제품으로 특화된 세계적인 기업이 일본의 종합 전자전기 메이커와 비교 시 훨씬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사업재편도 커다란 과제로 부상

〈일본의 전기전자 주요 11사의 업적 비교(2006년도)〉

	매출액 (억엔)	영업이익 (억엔)	당기순이익 (억엔)	영업이익률 (%)	매출액신장률 (5년간, %)
히타치제작소	10조 2,479	1,825	-327	1.8	28.2
마쓰시타전기산업	9조 1,081	4,595	2,171	5.0	32.4
소니	8조 2,956	717	1,263	0.9	9.5
도시바	7조 1,163	2,583	1,374	3.6	31.9
후지쯔	5조 1,001	1,820	1,024	3.6	1.9
NEC	4조 6,526	699	91	1.5	-8.8
미쓰비시전기	3조 8,557	2,330	1,230	6.0	5.7
샤프	3조 1,277	1,865	1,017	6.0	73.4
산요전기	2조 2,154	495	-453	2.2	9.3
파이오니아	7,971	124	-67	1.6	19.2
일본빅터	7,426	-56	-78	-0.8	-22.2
휴렛팩커드(미국)	10조9,073	7,806	7,375	7.2	
삼성전자(한국)	7조5,363	8,856	1조134	11.8	
노키아(핀란드)	6조4,559	8,616	6,711	13.3	
인텔(미국)	4조2,104	6,725	6,002	16.0	
애플(미국)	2조2,984	2,920	2,371	12.7	
닌텐도	9,665	2,260	1,742	23.4	

주 : 해외기업의 실적은 2006년말의 환율로 환산. 1달러=119엔, 1유로=157엔, 1원=0.1278엔
 자료 : 마이니치 신문사, 주간 이코노미스트(2007. 10. 30)

□ 최근 일본 전기전자 업계 수익률 동향

- 금년 상반기(2007. 4-9월) 중 주요 전자전기업체 9개사 실적은 디지털 가전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마쓰시타전기산업, 소니, 도시바 등 6개사가 과거 최고의 매출액 달성
- 후지쯔와 샤프를 제외한 7개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호조세 기록
- 다만 가전제품의 대표적인 薄型 TV(액정, 플라즈마 등)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주력 시장인 미국의 薄型 TV 평균단가는 금년 3/4분기 중 액정(32, 37인치)이 전년동기비 23-46% 하락, 플라즈마(37, 42인치)는 41-43% 대폭 하락
- 원자재 가격 상승, 엔고, 미국경기 등의 침체를 우려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년도 실적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 소니는 디지털카메라와 PC, 마쯔시타는 디지털 가전과 에어컨 등 백색가전 제품 분야에서 호조
- 도시바는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 호조, 히다치는 발전설비 등 전력사업 분야에서 개선
- 산요전기는 노트북 PC용 리튬이온전지 등의 호조에 힘입어 세후 이익이 3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 기록
- 그러나 주력 분야인 TV사업으로 영업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샤프와 마쯔시타 2개사에 그쳐 업체간 명암이 갈림
- 이러한 가운데 히다치는 미국시장에서 50인치 이상이 대형 TV 판매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쳐 박형 TV에서만 500억엔의 적자 기록

〈2007년 상반기(4-9월) 중 전기전자 주요업체 9개사 실적〉

	매출액(억엔, %)	영업이익(억엔, %)	세후이익(억엔)
히타치제작소	5조 2,804(10.7)	1,216(6.1배)	-130
마쯔시타전기산업	4조 5,253(3.1)	2,199(6.1)	1,051
소니	4조 595(12.8)	1,897(30.5배)	1,401
도시바	3조 6,899(16.7)	825(26.7)	456
후지쯔	2조 5,131(6.4)	439(-13.2)	-93
NEC	2조 1,405(-3.6)	274(3.6배)	-47
미쓰비시전기	1조 8,897(5.5)	1,291(38.0)	915
샤프	1조 6,408(12.0)	790(-13.2)	433
산요전기	1조 914(-0.4)	238(50.3)	159

자료 : 요미우리신문(11/28)

▶ 본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가 최근 일본 주간 잡지 「이코노미스트」 기사 및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번역/요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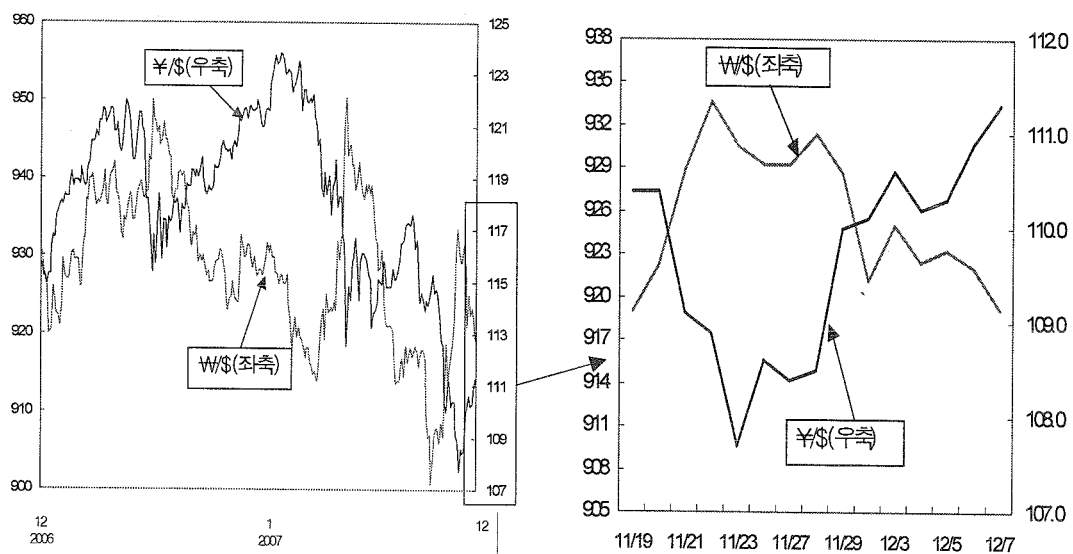
Focus 3

원-달러환율, 이번 주 919.2원으로 마감

□ 원화환율은 주초 925.0원으로 시작, 12월 7일 919.2원으로 마감

— 한편 엔-달러 환율은 12월 7일 111.3엔을 기록

〈원-달러환율 및 엔-달러환율 장단기 추이〉



〈주간환율동향〉

	2006 년말	2006년중 최고치	전주말 (11.30)	2007.12.3~12.7					주간변동율 (%)
				12.3	12.4	12.5	12.6	12.7	
₩/\$	929.6	1008.9	921.1	925.0	922.5	923.3	922.1	919.2	-0.2
₩/100¥	781.8	867.7	835.5	836.0	837.3	837.0	831.3	825.8	-1.2
₩/EUR	1222.2	1228.6	1371.8	1355.8	1355.4	1363.3	1349.2	1351.2	-1.5
¥/\$	118.9	119.9	110.1	110.6	110.2	110.3	110.9	111.3	1.1
EUR/\$	0.7606	0.8458	0.6770	0.6827	0.6817	0.6775	0.6842	0.6830	0.9
위안/\$	7.8135	8.0702	7.3820	7.3980	7.4025	7.3985	7.3932	7.4135	0.4

▶ 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홍승범 연구원 (☎6000-5176, everhong78@kita.net)

Briefs 1

국민의 풍요지수, 한국 20위 차지

- 일본 사회경제 생산성 본부는, OECD 30개국의 풍요지수를 비교한 <주요국의 풍요지수 국제비교 2007>를 발표
 - OECD와 세계은행의 56개 지표를 6가지(건강, 환경, 노동경제, 교육, 문명, 거시경제)로 분류해 각국의 순위를 비교
- 북유럽 국가들의 종합 풍요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20위를 차지
 - 룩셈부르크(64.31)가 1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62.16), 스웨덴(60.64)이 각각 2위와 3위에 오름
 - 한편, 일본(54.88), 미국(52.91), 독일(49.95)은 각각 7위, 12위, 19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48.62로 20위를 차지, 스페인(21위), 이탈리아(22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환경지표(10위), 거시경제지표(9위)가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건강지표(25위), 노동경제지표(19위), 교육지표(22위), 문명지표(21위)는 하위권을 보임
 - 우리나라의 환경지표는 55.56으로 핀란드에 이어 10위를 차지했으며, 거시 경제 지표는 53.33으로 역시 핀란드에 이어 9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건강지표는 41.83으로 포르투갈에 이어 25위에 머무
 - 노동 경제지표는 49.96을 기록해 프랑스에 이어 19위 기록
 - 그 외 문명지표(47.07)는 21위, 교육지표(43.99)는 22위 차지

〈OECD 30개국의 풍요지표 순위(2007)〉

순 위	풍요지표		카테고리 지표					
			건강지표	환경지표	노동 경제지표	교육지표	문명지표	거시 경제지표
1	룩셈부르크	64.31	62.86(2)	56.09(8)	71.62(1)	48.69(19)	62.37(3)	84.24(1)
2	노르웨이	62.16	61.13(4)	56.65(7)	62.76(2)	61.61(5)	65.07(1)	65.73(2)
3	스웨덴	60.64	53.39(14)	66.43(1)	59.53(5)	64.67(1)	64.35(2)	55.45(7)
4	스위스	59.02	61.81(3)	58.19(5)	54.76(11)	64.08(3)	58.93(6)	56.35(6)
5	필란드	56.13	49.10(20)	55.68(9)	54.67(12)	64.21(2)	59.06(5)	54.07(8)
6	오스트리아	55.99	57.45(6)	65.85(2)	56.91(8)	51.86(16)	52.28(14)	51.58(13)
7	일 본	54.88	58.34(5)	58.70(4)	55.94(9)	52.88(13)	57.94(9)	45.45(22)
8	덴마크	54.62	49.45(19)	45.86(24)	57.31(6)	62.10(4)	55.90(11)	57.12(5)
9	캐나다	54.38	51.60(15)	57.47(6)	56.92(7)	57.82(7)	51.70(16)	50.75(15)
10	호 주	53.18	56.56(7)	48.76(19)	54.06(13)	52.79(14)	54.64(12)	52.25(11)
11	아일랜드	52.94	55.78(10)	46.15(23)	52.52(14)	50.03(18)	51.05(17)	62.13(3)
12	미 국	52.91	54.02(12)	34.58(29)	62.10(3)	57.36(8)	57.65(10)	51.73(12)
13	네덜란드	52.51	56.15(8)	38.43(28)	50.70(17)	58.52(6)	58.90(7)	52.38(10)
14	아이슬란드	52.18	65.49(1)	12.53(30)	60.50(4)	56.91(9)	60.00(4)	57.66(4)
15	뉴질랜드	51.62	50.33(17)	58.91(3)	46.74(21)	52.94(12)	52.02(15)	48.76(16)
16	영 국	51.58	47.71(22)	44.60(26)	55.46(10)	55.12(10)	58.41(8)	48.15(17)
17	벨기에	50.34	53.49(13)	43.50(27)	52.39(15)	53.96(11)	47.88(19)	50.81(14)
18	프랑스	50.23	55.98(9)	49.73(15)	50.33(18)	50.40(17)	48.68(18)	46.27(19)
19	독 일	49.95	55.32(11)	44.62(25)	48.74(20)	52.06(15)	53.26(13)	45.71(21)
20	한 국	48.62	41.83(25)	55.56(10)	49.96(19)	43.99(22)	47.07(21)	53.33(9)
21	스페인	47.94	50.10(18)	51.38(14)	50.83(16)	44.52(21)	42.93(23)	47.88(18)
22	이탈리아	46.90	50.68(16)	53.61(11)	44.26(22)	44.57(20)	47.34(20)	40.92(25)
23	체 코	44.05	46.84(23)	49.35(17)	36.30(27)	41.60(25)	44.31(22)	45.91(20)
24	그리스	43.00	48.85(21)	49.52(16)	42.66(23)	41.61(24)	35.07(27)	40.29(26)
25	포르투갈	42.95	44.07(24)	52.57(13)	39.00(24)	41.13(26)	41.20(24)	39.74(28)
26	헝가리	41.96	36.81(27)	52.98(12)	37.05(26)	43.14(23)	39.43(25)	42.37(24)
27	슬로바키아	39.74	39.44(26)	47.57(21)	30.46(30)	37.21(28)	38.53(26)	45.25(23)
28	폴란드	38.53	35.30(28)	48.21(20)	33.87(28)	40.73(27)	33.30(28)	39.78(27)
29	멕시코	34.79	28.22(29)	47.49(22)	38.59(25)	26.15(30)	29.45(30)	38.85(29)
30	터 키	31.96	21.90(30)	49.04(18)	33.08(29)	27.38(29)	31.27(29)	29.09(30)

* 지표의 구성 : 건강지표(평균 수명, 의사수, 사망자수 등 총 8개), 환경지표(CO2 배출량, 관광수입, 수질오염 배출량 등 총 9개), 노동경제지표(실업률, 단위노동비용, 임금 등 총 8개), 교육지표(국민의 평균학력, 특히 취득 수, 15세 학생의 독해력 등 총 9개), 문명지표(자동차수, 전력소비, 휴대 전화수 등 총 10개), 거시경제지표(경제성장률, 수출액, 수입액 등 총 11개)

News 1

美 의회 상원, 미국-페루 FTA 비준동의
(New York Times, 12/5)

- 12월 4일, 美 상원은 미국-페루 FTA를 찬성 77표, 반대 18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
- 미국-페루 FTA는 지난 11월에 美 하원에서 285 대 132로 통과된 바 있으며,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승인만 남았음

News 2

MERCOSUR-이스라엘 FTA 체결 임박
(Jerusalem Post, 11/28)

- 11월 28일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와 이스라엘의 FTA 체결이 임박했다고 밝힘
-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이는 MERCOSUR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이스라엘이 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FTA가 되며, 12월 중순경 우루과이에서 공식서명될 예정
- 한편 MERCOSUR는 EU 27개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EU측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 Mercado Comun del Sur : 남미공동시장. 남미지역 최대경제 통합체로서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이며 현재 베네수엘라가 가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News 3

인도-EU FTA 협상타결 지연
(ASHOK B SHARMA, 11/29)

- 양허방식(modality)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인도-EU FTA 협상이 2008년 연내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요한 것은 협상내용이지 시한이 아니다”라면서 인도의 공공조달정책(public procurement policy)이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경쟁정책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
- 이에 대해 인도의 Kamal Nath 통상장관은 정부조달의 투명화 및 경쟁정책 등 싱가포르 이슈*는 양측간 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반박함

* Singapore Issues :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제기되었으며, 투자정책,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4개 분야로 구성.

News 1

구글, 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

- 구글은 '석탄보다 싼 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Cheaper Than Coal)' 프로젝트는 일환으로 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 구글은 친환경 운동의 일환으로 석탄보다 더 싼 가격에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인 1기가 와트(GW) 용량의 재생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구글 공동창립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 제품담당 사장은 "우리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 집약적인 시설을 설계·개발하는 전문성을 획득했기때문에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 에너지 생산이라는 도전적인 과제에도 우리의 창의성과 혁신을 적용해 석탄보다 더 싼 전기를 생산하겠다."고함
- 비영리 구글 재단(Google.org)은 태양광 발전기술을 보유한 '이솔라(ESolar Inc.)'와 풍력발전 회사인 '마카니 파워(Makani Power Inc.)'와 손을 잡음
- 구글은 '수십 년 후가 아닌, 수년 내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음

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www.kita.net)

News 2

공개 수배된 테러리스트의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로봇

- 소고 시큐리티 서비스(Sohgo Security Services Co Ltd)사가 개발한 보안 로봇 시스템은 특정인의 얼굴을 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
- 레보르그 큐(Reborg-Q)라고 명명된 이 로봇은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해 개발됨
 - 로봇은 특정 장소에 배치되거나 혹은 주위를 배회하며 등록된 사람들의 얼굴을 감지하면 즉각 경비원에게 스냅사진을 촬영해 보고함
 - 이 시스템에 사용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옴롬(Omrom)사가 개발한 '오카오 비전(Okao Vision)'으로 테러리스트나 공개수배와 같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얼굴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음
 - 업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행사장의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로봇을 사용할 계획임

출처 : Tech-On (www.kita.net)

* 본 자료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ita.net의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1. 무역

(백만달러, %)

	2 0 0 6 년		2 0 0 7 년	
	11월	연간	11월	1-11월
수 출 (增減率)	30,602 (18.5)	325,465 (14.4)	35,948 (17.5)	338,701 (14.2)
수 입 (增減率)	26,765 (12.2)	309,383 (18.4)	33,845 (26.5)	322,549 (14.4)
수출입차	3,837	16,082	2,103	16,152

2. 외환

	2005년말	2006년말	12.3	12.4	12.5	12.6	12.7	週初比%
₩/US\$	1,013.0	929.6	925.0	922.5	923.3	922.1	919.2	-0.6
₩/100¥	859.9	781.8	836.0	837.3	837.0	831.3	825.8	-1.2
¥/US\$	117.8	118.9	110.6	110.2	110.3	110.9	111.3	0.6

3. 금융

	2005년말	2006년말	12.3	12.4	12.5	12.6	12.7	週初比%
회사채 ¹⁾ 수익율(3년)	5.52	5.29	6.46	6.52	6.70	6.70	6.81	-
주가지수 ²⁾	1,379.37	1,434.46	1,902.43	1,917.83	1,938.20	1,953.17	1,934.32	1.7
외국인 순 매수(억원) ³⁾	399	△284	135	△2,676	△1,850	1,093	2,832	-
KOSDAQ ²⁾	701.79	606.15	736.93	747.53	749.95	751.57	747.65	1.5

1) AA등급 무보증 사채의 단순 평균 수익률 2) 종가 기준 3) 연도말 및 월말은 누계치

4. 국제금융

	2005년말	2006년말	12.3	12.4	12.5	12.6	12.7	週初比%
LIBOR (3월, \$)	4.54	5.36	5.14	5.15	5.15	5.12	-	-0.4
뉴욕주가 지수(D/J)	10,718	12,463	13,315	13,249	13,445	13,620	-	2.3
NASDAQ	2,205	2,415	2,637	2,620	2,666	2,709	-	2.7
동경주가 지수	16,111	17,226	15,629	15,480	15,609	15,874	-	1.6

5. 원자재

	2005년말	2006년말	12.3	12.4	12.5	12.6	12.7	週初比%
원유 Dubai(\$/bbl)	53.49	56.71	82.95	84.53	85.50	82.66	-	-0.4
256M 반도체 (US\$/개) ¹⁾	3.26	2.89	2.34	2.34	2.34	2.34	-	0.0

1) 아시아 현물시장가격 32×8 133MHz